

자서전적인 것들

우리는 저마다 처한 환경과 거기에서 형성된 경험 덕분에 특정한 주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기억과 재현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 없이 재구성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진 이때, 한국아메리카학회는 “자서전적인 것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을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월 25일 목요일 저녁 6시

강연참가 <https://sookmyung-ac-kr.zoom.us/j/88081239288>

강 사 김선영 (TV 평론가)

제 목 젊은 페미니스트 예술가의 초상

강연내용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당신보다 그것이 좋아>(She's Gotta Have It, 2017)는 세계적인 거장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인 스파이크 리 감독이 자신의 동명 데뷔작을 직접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이다. 주인공 놀라 달링은 예술, 사랑, 섹스, 자유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삶을 꿈꾼다. 주류 사회의 납작한 호명을 벗어나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놀라의 여정 속에서 현대 여성들의 욕망을 들여다본다.

4월 1일 목요일 저녁 6시

강연참가 <https://sookmyung-ac-kr.zoom.us/j/88466292841>

강 사 Jane Jeong Trenka (writer and activist)

제 목 A Discussion Focusing on Adoption with Jane Jeong Trenka

강연내용 Jane Jeong Trenka will share some documents from her own adoption from South Korea to the U.S. to visually illustrate the legal orphaning and emigration/immigration process, and the cooperation of the U.S. government with the South Korean child export system. As an activist, Jane would like to invite more people into the realm of adoption studies and is happy to think together with scholars and students about their projects, and point scholars toward materials.

4월 8일 목요일 저녁 6시

강연참가 <https://sookmyung-ac-kr.zoom.us/j/87463558703>

강 사 정은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문학 · 문화학과 교수)

제 목 부서지며 말하기 : 꽃의 언어와 시인-되기의 일

강연내용 120년에 이르는 노벨문학상의 역사에서 여성 시인으로서 두 번째로 수상한 루이즈 글릭(Louise Glück, 1943-)의 시는 자전적인 경험을 투사한 독특한 서정의 미학을 구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인은 1968년 첫 시집 『만이』(Firstborn)부터 시작하여 1992년 『야생붓꽃』(The Wild Iris, 풀리처상 수상작), 2006년 『아베르노』(Averno)를 거쳐, 2014년 『독실하고 고결한 밤』(Faithful and Virtuous Night)에 이르기까지 13권의 시집을 내면서 시적 형식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변모를 거듭해 왔다. 본 강의는 우울과 거식증과 싸우면서 시를 쓴 생존자 시인의 목소리가 꽃의 언어로 발화된 과정을 살피면서 시인의 자전적 경험과 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